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7면	"특례 3차 개정안 국회조기통과 역점 여·야 막론 정책 대안..."	1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심혈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최선"	1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갑진년 새해 밝았다... 강원도민 "올해도 건강, 무탈하길"	2
江原日報	03면	4·10 총선 누가 뛰나	3
강원도민일보	04면	8개 선거구 자천타천 45명 '각축전' ... 원주를 10명 최다	4
江原日報		"횡성 주민 화합으로 지역 웅비"[1/2]	5
강원도민일보	24면	화천 새해 해맞이	7
강원도민일보	23면	[2024 새해맞이 행사] 평창	7
江原日報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속초), 우수의정대상 수상	7
강원도민일보	19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23면	[동정]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8
강원도민일보	22면	[동정] 최상기(위 왼쪽) 인제군수·이춘만(위 오른쪽) 군의...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8
강원도민일보	01면	[광고]	9
江原日報	01면	[광고]	9
江原日報	04면	강원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탈락 영서 북부지역 ...	10
강원도민일보	06면	"가족 건강" 소망 해맞이 인파 강릉에만 22만 명 몰려	10
강원도민일보	05면	철원·화천·강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2.5배'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춘천 교육발전특구안 이달 지방시대위 심의	11
강원도민일보	19면	강릉시 어촌·중기·관광 공모사업 선정 성과	12
강원도민일보	24면	양구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94% "군 지원 적절"	12
강원도민일보	27면	[사설] 디지털 뉴스·콘텐츠 선두주자로	13
강원도민일보	27면	[사설] 지자체 지출 '실사구시' 절실하다	14
江原日報	24면	[사설] 대통령 신년사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펼치려면	15
江原日報	24면	[사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새로운 도전의 해 돼야	16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07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특례 3차 개정안 국회 조기통과 역점
여·야 막론 정책 대안 도민체감 노력”

●제11대 도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았다.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 소회와 성과는, “2022년 7월 제1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48명의 도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도민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제2청사 개청,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6월부터 강원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출범했지만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11건에 대한 시행령을 소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5월 즈음에 해당 시행령이 공포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용도변경, 건축인·허가나 농지전용과 같은 규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도 17년 동안 7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개정 과정에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특례를 발굴, 이를 입법화해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으로 의원 도정질의 등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안건을 심사·심의해야 할 도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은 필수적이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 확보는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넘어 정책대안 제시까지 가능하게 그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을 수차례 실시했다. 업무의 전문성은 향상되고 상호 유대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정을 평가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제2청사 개청, 강도높은 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41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 등 각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역점을 둘 분야 및 현안 등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3차 개정안 반영이다. 3차 개정안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관련 특례와 제주특별법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신규특례 발굴을 중심으로 추진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해주신다면,

“푸른 용의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현안도 해결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이설화

▶인터뷰 전문 kado.net

江原日報

2024 01 02 ()

02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심혈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최선”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4년에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고 활기차게 당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도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선제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활발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늘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01 ()

강원도민일보

갑진년 새해 밝았다... 강원도민 "올해도 건강, 무탈하길"



▲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가 31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려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시민들이 타종식을 통해 새로운 새해, 희망찬 새해를 염원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12월31일 저녁부터 춘천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에서는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의 2024년이 되기를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이어졌다.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 토정비결을 볼 수 있는 시민체험공간이 마련됐으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LP로 듣는 음악감상실이 운영,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어쿠스틱밴드와 시민참여형 마임 퍼포먼스인 슈트맨, 북주머니 터트리기와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타종에는 지역 주요 기관장과 제41회 춘천시민상 수상자가 함께했다.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에 나선 시민들은 희망찬 새해를 염원했다.

이희정(63·여)씨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사건사고도 없고 전쟁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 돼 평화로운 지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연순(65·여)씨 역시 "건강이 최고"라며 "아프지 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 잘 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가 31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려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시민들이 타종식을 통해 새로운 새해, 희망찬 새해를 염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민들 덕분에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다"며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 듬뿍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갑진년 새해에도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강원교육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밝아온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역동하는 도시, 맑은 도시, 따뜻한 공동체 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장은 "기대로 가득찬 2024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춘천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들은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움과 성공을 상징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노용호 국회의원들은 "새해에는 용처럼 하늘 높이 도약하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세현·박재혁

江原日報

2024 01 02 ()
03

※입지자 순서는 현역·정당·가나다 순(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전제), 정당 표기(국힘=국민의힘, 민주=더불어민주당, 진보=진보당, 시민=사회민주당, 무=무소속)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원주갑



원주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강원도민일보

8개 선거구 자천타천 45명 '각축전'...원주를 10명 최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가 파악한 총선 출마 예상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

■ '50대', '남성', '국힘' 다수

본지가 파악한 22대 총선 출마 예상자는 총 45명이다. '원주' 선거구 총선 후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본선에 앞서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고된 '춘천·철원·화천·양구'가 7명, '춘천·철원·화천·양구'가 8명으로 집계됐다.

국힘, 역대 총선 다수 의석 차지
춘천갑을 치열한 공천경쟁 예고

3월 21~22일 본 후보 등록기간

평균 나이는 55.1세다. 5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15명, 40대 8명, 30대 3명, 70대 1명 등이다. 최연소자는 강릉 지역구 진보당 소속 장지창(33) 강릉청년센터 대표, 최연장자는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 국민주권 소속한 기호(71) 국회의원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5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다. 45명 중 여성은 김혜란·이영랑·임명희 등 3명(6.7%)으로 나타났다.

■ 강원 총선 '보수당' 우위

역대 강원 총선은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온 보수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6석, 열린우리당이 2석을 차지했고, 이어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3석, 통합민주당 2석, 무소속 3석 등을 차지했

다.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9석 전석을 석권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당선되며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1석, 무소속 1석 등으로 바뀌었다. 지난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권성동)으로 민주당 의석 수가 늘었다. 이후, 지난 2022년 원주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하 의원이 당선되면서 현재는 국민의힘 6석, 민주당 2석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오는 11일 공직사퇴...판 흔들까

총선 시계는 이미 100일 벽이 무너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원주를 출마예상자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앞서 지난달 27일 시작했고,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출마예상자인 이호범 전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과 변지창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사직서를 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 20일 전인 3월 21~22일까지 이틀 간 이뤄진다. 선거 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인 4월 5일~6일 실시된다.

이설화 loli@kado.net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53·민 국회의원
노용호 52·국 국회의원
강대규 38·국 변호사
김혜란 47·국 도당 법률자문
박영준 60·국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회장
김창수 64·민 남북강원주민연대 대표
오정규 56·무 중도우익위원단체 연대 공동대표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71·국 국회의원
이민찬 39·국 국민주권
허인구 64·국 전 G1방송 사장
유정배 59·민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전성 65·민 전 지역위원장
최문순 67·민 전 강원도지사
변지창 65·무 강원도도민복지특별자문관
이호범 47·무 공무원노조위원장

원주갑



박정하 57·국 국회의원
원창목 63·민 전 원주시장
여준성 52·민 전 대통령
최석 46·민 전 민주당
최혁진 53·민 전 청와대 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위 부의장

원주을



송기현 59·민 국회의원
권이중 51·국 변호사
김기홍 45·국 도의원
박동수 64·국 변호사
안재윤 59·국 국민주권
역외의동행 위원



윤용호 67·국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장승호 53·국 한국대학야구맹부 수석부회장
최재민 40·국 도의원
박성원 58·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김완섭 55·무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17대 총선 한나라당 6·열린우리당 2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춘천	허영(한나라당)
원주	이재진(한나라당)
강릉	심재업(한나라당)
동해·삼척	최연희(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정문현(한나라당)
홍천·횡성	조일현(열린우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이광재(열린우리당)
철원·화천·양구·인제	박세환(한나라당)

18대 총선 한나라당 3·통합민주당 2·무소속 3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춘천	허영(한나라당)
원주	이재진(한나라당)
강릉	최육철(무소속)
동해·삼척	최연희(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송훈석(무소속)
홍천·횡성	황영철(한나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이광재(통합민주당)
철원·화천·양구·인제	이용삼(통합민주당)

19대 총선 새누리당 9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춘천	김진태(새누리당)
원주갑	김기선(새누리당)
원주을	이강후(새누리당)
강릉	권성동(새누리당)
동해·삼척	이재제(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	정문현(새누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영동열(새누리당)
홍천·횡성	황영철(새누리당)
철원·화천·양구·인제	한기호(새누리당)

20대 총선 새누리당 6·더불어민주당 1·무소속 1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춘천	김진태(새누리당)
원주갑	김기선(새누리당)
원주을	송기현(더불어민주당)
강릉	권성동(새누리당)
동해·삼척	이철규(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영동열(새누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이양수(새누리당)
홍천·횡성	황영철(새누리당)

21대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4·더불어민주당 3·무소속 1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미래통합당)
원주갑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송기현(더불어민주당)
강릉	권성동(무소속)
동해·삼척·정선	이철규(미래통합당)
속초·고성·양양	이양수(미래통합당)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미래통합당)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2022년 6월 1일)

선거구	국회의원(정당)
원주갑	박정하(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도내 8개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2

강릉



권성동 62·국 국회의원
이영랑 48·국 한국이미지
김중남 61·민 도당 탄소중립
리더십센터 대표 특별위원장



배신식 62·민 전 지역위원장
장지창 33·진 강릉청년센터 대표
임명희 41·사 도당 위원장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65·국 국회의원
김양호 61·민 전 삼척시장
한호연 65·민 전 지역위원장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55·국 국회의원
김도균 56·민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상진 55·민 전 지역위원장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56·국 국회의원
허필홍 58·민 전 홍천군수
강석현 50·진 전국농민회총연맹 도연행 사무장

◇ 이재준=현역-정당-가나다순
(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적용)
◇ 정당=(국=국민의힘, 민=더불어민주당, 진=진보당, 사=사회민주당, 무=무소속)

2024 01 01 ()

江原日報

“횡성 주민 화합으로 지역 웅비”

횡성 2024년 새해맞이 행사 풍성



횡성 2024년 새해맞이 군민의 종 타종식이 1일 오전 10시 군민의 종각에서 열렸다.



횡성 2024년 새해맞이 군민의 종 타종식이 1일 오전 10시 군민의 종각에서 열렸다.



횡성 2024년 새해맞이 군민의 종 타종식이 1일 오전 10시 군민의 종각에서 열렸다.



횡성 2024년 새해맞이 군민의 종 타종식이 1일 오전 10시 군민의 종각에서 열렸다.



둔내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리는 2024년 새해맞이 불꽃쇼와 100명 핫볼스키 퍼포먼스.

횡성지역에서 2024년 새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돼 힘찬 출발을 했다.

횡성군청 인근 '군민의 종각' 소공원에서 지난 31일 오후 11시 20분부터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종 타종 및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김경녀 횡성교육장, 이동권 횡성경찰서장, 이창진 민평통 횡성군협의회장, 최종웅 농협횡성군지부장, 마기성 횡성농협조합장, 김용식 동횡성농협 조합장, 최순석 둔내농협조합장, 임원규 안흥농협조합장, 노대규 농협횡성군지부농정지원단장 등 농협 관계자.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 신형철 횡성대성병원장, 김선심 선덕의료재단 이사장, 군청 실.과.소장 등을 비롯해 군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에도 주민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웰리힐리조트(대표:민영민)에서도 지난 31일 '노라조' 등 가수와 디제잉, 걸그룹 공연이 마련돼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여는 불꽃쇼와 100명 참가 핫볼 스키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1일 새벽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정상을 비롯해 군 관내 해돋이 명소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했다. 횡성=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24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23



화천 새해 해맞이 화천군 갑진년 새해맞이 행사가 1일 화천읍 서화산 전망대에서 최문순 군수와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허행일 화천경찰서장, 이화영 문화원장, 봉윤일 NH농협 화천군지부장을 비롯한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 평창제야의올림픽대종타종행사가 지난달 31일 올림픽대종 종각에서 심재국 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이옥환 문화원장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01 ()

강정호 도의원(속초), 우수의정대상 수상



속초 강정호 도의원(속초1.사진 오른쪽)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2023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한 공이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모범 사례를 발굴·전파를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강 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아 예산확보 및 심사에 힘쓰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및 효율적인 도의회 운영 등 대의자 역할을 해왔다.

강 도의원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2024년에도 시민을 위한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19



박호균 도
의원은 2
일 오후 3
시 강원경
제자유구

역청사에서 열리는 강
원경제자유구역청 현
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23

현판식에 참석한다.



김기철(정
선) 도의
회 경제산
업위원장
은 2일 오

후 3시 강원경제자유
구역청사 현관 및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22



최상기(위
왼쪽)인제
군수·이춘
만(위 오른
쪽) 군의

장·임윤순(인제) 도
의회 농림수산위 부위
원장은 2일 오전 9시·
10시 인제 충혼탑에서
열리는 새해 충혼탑
참배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 01 01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일 오후 3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사 현관 및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에 참석.

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장은 2일 오전 9시 인제 충혼탑에서 열리는 2024 새해 충혼탑 참배행사에 참석.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찬홍(춘천).김희철(춘천).이승진(비례) 도의원은 2일 오전 10시 춘천 충렬탑에서 열리는 2024년 충렬탑 신년참배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0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4 01 02 ()

0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01 02 ()

江原日報

04

강원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탈락
영서 북부지역 중환자 의료공백 지속 우려

도내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곳 재지정

2024년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2곳에 머무르면서 영서 접경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중환자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지역 내 중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질환을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도내 지정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도 전장을 내밀었던 강원대병원이 탈락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던 춘천과

접경지 등 영서 북부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의 경우 영서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동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분야별로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할 '전문병원' 공모도 시행했으나 전국 109개 기관 중 도내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06

“가족 건강” 소망 해맞이 인파 강릉에만 22만 명 몰려

청룡의해 갑진년 새해 첫날

청룡의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의 첫 해가 밝았다. 비록 흐린 날씨로 인해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해맞이 명소를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소망을 기원하며 새해 첫날을 맞았다. 동해안에는 일출을 보려는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강릉에만 22만 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1일 첫 일출이 예보됐던 오전 7시 40분, 경포 수평선으로 희미하게 번지는 여명을 바라보며 새해 아침을 맞은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이날 강릉에서 만난 시민·관광객들의 새해 소원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 등이 압도적이었다. 관광객 이

호린날씨 탓 전년비 28% 감소

일출명소 고속도 거북이 행렬

강원권 교통량 40여만대 집계

아연(29·대구)씨는 “가족들의 건강과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며 “올해 처음 일출 명소인 경포를 찾아왔는데, 날이 우중충해 아쉽지만 기분은 너무 좋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호린 날씨로 등근해는 보기 어려운 탓에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은 소폭 감소했다. 강릉의 경우 경포 10만1156명, 정동진 8만9916명, 안목 1만7983명 등 여러 해맞이 명소에 모두 22만

4790여명의 인파가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1만2000여명보다 약 28% 감소했다. 사흘간 이어진 연휴로 해맞이 명소로 다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경찰은 안전·교통 관리를 위해 3개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54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도 신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춘천시는 지난 31일 오후 8시부터 시청광장

에서 ‘춘천시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원주시도 같은날 오후 11시 30분쯤 치안중각에서 2024년 새해맞이 타종식을 진행했다. 이희정(63·춘천)씨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사건사고도 없고 전쟁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 돼 평화로운 지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1일 오전 일출명소를 해맞이객들이

귀경에 나서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도 이어졌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는 이날 오전부터 거북이 행렬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일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량은 40여만대로, 고속도로 최대 소요 예상시간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4시간 40분으로 집계됐다.

이연재·신재훈·이진규·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05

철원·화천·강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2.5배'

국방부가 철원군과 화천군, 강릉시 등 3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618만 7384㎡를 지난 달 29일 해제했다.

해당 면적은 여의도(290만 ㎡)의 약 12.5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철원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 3090만 2370㎡(934만평)과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274만 5875㎡(83만평),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 253만 9239㎡(77만평) 등이다.

해당 지역은 군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은 강원도 지역이 95.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취락지와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 규제 개

선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 등을 활용한 신속한 사업추진·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를 해소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17

춘천 교육발전특구안 이달 지방시대위 심의

18일까지 특구 지정 계획 제출 실현 가능성 판단 등 사전점검 보완 후 내달 교육부 공모 도전

민선 8기 춘천시 핵심 목표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초 마감인 교육부 공모에 앞서 당장 이달 중순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춘천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오는 18일까지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계획안'을 제출한다.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 공모 제출 전 사전점검 단계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공조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획안은 보완을 거쳐 내달 9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는 게 춘천시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이 지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이 가능한 특구로,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특구 당 지원비는 3년간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안팎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추가되면서 5곳에 달했던 교육발전특구 신청 지자체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춘천을 비롯해 원주, 강릉, 태백, 화천이 특구 유치를 희망했다.

춘천시가 제출하는 분야는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이다. 춘천시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시책을 기반으로 지역 6개 대학과의 상생,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활용한 협업시스템 가동 등을 내세울 방침이다.

김상희 교육도시과장은 "춘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1년 6개월 간 쌓아온 역량을 잘 반영해 특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q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19

강릉시 어촌·중기·관광 공모사업 선정 성과

총 59건·사업비 1300억원대
문화유산·약자편익 지속사업 등
국가산단 조성 지역발전 견인차

강릉시가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59건이 선정되면서 1300여억원대의 사업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모사업 59건이 확정돼 지난 2022년 81건 1900여억원 대비 건수와 사업비가 다소 주춤했지만 장기적 사업 등을 유치해 개발 가

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40억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100억원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6건이 선정됐다.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도 공모해 사업비 4억4500만원과 1억8400만원을 각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도전, 24억원의 사업비를 받

았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27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기업지원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소멸대응 기금 사업에 응모, 강릉커피사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에 선정되기도 했다.

ITS추진과는 강릉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건에 선정됐다.

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구축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50억원 확보는 물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버팀목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문화유산 야행사업,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등 문화와 예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3~4년의 사업이 지속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등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시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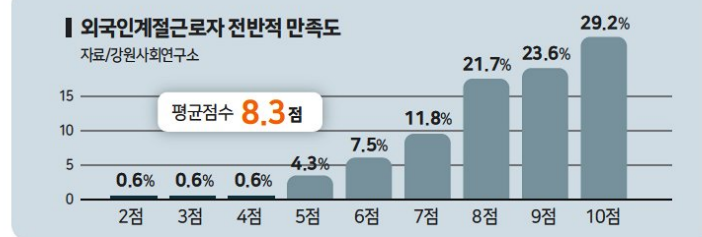
24

양구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94% “군 지원 적절”

강원사회연구소 만족도 조사
고용주 96.3% 올해 재고용 신청
문화교육·근로자 품앗이 건의

양구지역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의 전반적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주의 99.4%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양구군이 최근 강원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올해 고용주



별로 고용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수는 2명 (37.9%)이 가장 많았고, 1명 (18%), 3명 (15.5%), 4명 (12.4%), 6명 (11.2%) 등 순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구군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

과 ‘예’라고 답한 경우가 93.8%로 조사됐다. ‘아니오’라고 답한 6.2%의 고용주들은 △양구군이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 말을 다 들어주면 좋겠음 △한국에 대한 예절과 일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싶으면 좋겠음 △근로자 품앗이가 가능하면 좋겠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을 제시했다.

2023년 고용주의 96.3%는 2024년 재고용을 신청했다. 그 이유로 ‘경험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43.2%), ‘업무수행능력이 만족스러워서’ (35.5%), ‘새로운 근로자에 대한 불확실 때문’ (21.3%)이라고 응답했다. 고용주들은 필리핀 이외의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국가로 베트남 (28%), 캄보디아 (19.9%), 라오스 (11.8%)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양구군이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전화 및 직접 면접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동명 ldm@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 27

디지털 뉴스·콘텐츠 선두주자로

-본보신년 목표, 다변화된 뉴스로 새 기풍 일으킬 것

강원도민일보는 '지방시대·디지털시대 혁신으로 선도한다'라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기풍을 일으킬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하며 2024년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역언론 중 네번째로 대형포털 네이버 100만명 독자를 짧은 시간에 돌파하는 저력을 선보인 것에 이어 디지털 미디어 선도 언론으로 위상을 인정받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2024년 올해 더 힘차게 나아가면서 급성장의 신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가 폭증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해 온 본보는 신년을 기해 독자와 강원도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5일 발행되는 종이신문을 넘어 토·일요일 주말 뉴스를 강화하고 평일 심야시간대 등에 걸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뉴스와 콘텐츠를 서비스할 것입니다.

이미 본보의 뉴스와 콘텐츠 수준은 강원인과 강원지역에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해 왔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지역신문컨퍼런스 2관왕,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등 여러 수상에서 보여주듯 심층적이고 차

별화된 보도로 정평나 있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 포진한 현직 기자들이 발로 뛰어 발굴해 조명한 다양한 뉴스를 참신한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남다른 다짐으로 디지털 뉴스 및 콘텐츠 강화를 선언한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과 글로벌도시 두 축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강원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넓혀가려면 디지털 미디어 기능이 중요합니다. 본보 전체 임직원이 디지털 마인드를 장착하고 역량을 키워가도록 미디어 학습 및 전문가 초청 강연과,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격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 대형포털에 의존해 온 것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외연을 확대해 온라인 독자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법제완성을 향해 여러 과제를 도출하고자 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보도 약의 저력은 주인의식과 창간정신에 있으며, 제2의 도약을 향한 신년을 맞아 제2의 창간 열정과 주인정신으로 강원엔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 27

지자체 지출 '실사구시' 절실하다

-복합위기 시대, 주민 복리와 산업전략병행해야

경기불황과 세제변동 등으로 인해 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여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축으로 이어져 걱정이 큼니다.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운영 탄력성이 이전에 비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주민 복리 및 권익 신장과 밀접한 정책 예산 감소로 인해 공동체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지출에 주민 복리를 우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 부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연말에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경영 위기 사태를 비롯해 경제 전반 부문을 가리지 않고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은 올해 강원지역 실물경제가 불안정하고 민간기업에서의 어려움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어두운 뉴스가 잇따릅니다.

특히 공공부문 예산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는 강원경제계는 기업에서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를 더 염려합니다. 도와 시군은 엄중한 경제 환경과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인 주민 복리와 중장기 산업전략 대책이 병행돼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

민복리를 현금 지원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첨단 기술 발전 속도가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와 생활 환경, 문화를 창출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첨단 기술 교육과 적용에서 매우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첨단 기술에 주민이 적응하고 활용하도록 교육과 지원 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도에 새로 선정된 각종 국가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국고 배정 및 추진 소요 기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먼저 예산이 배정되고 금액도 다르므로 최대치로 반영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통합 강원대와 한림대는 도 및 18개 시군 지자체와 긴밀해야 특화 발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면 전시 효과에 집착하는 선출직 공약 지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지출에 구멍이 덜 생깁니다. 복합 위기 시대를 극복하자면 지자체 예산을 더욱 실효적으로 쓰도록 완벽히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사구시 정신이 절실한 해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02 ()

/ 24

대통령 신년사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펼쳐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뜻이 담긴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의 회복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수출 개선을 통한 경기 회복과 성장, 물가 안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19차례, ‘민생’을 9차례 언급했다. 신년사 발표에 앞서 서울현충원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지난해까지 성장과 개혁에 국정 운영의 방점을 찍었다면 집권 3년 차에는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또 전년에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먼저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또 한미·한일 관계 재구축으로 보다 든든한 안보 태세를 다지겠다는 다짐도 거듭 내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그동안 쌓은 통치 역량을 기울여 산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며 국회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해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 않은 해가 있었을까라는 올해는 더욱 그렇다. 안팎으로 맞닥뜨린 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탓만 할 게 아니다. 정부나 여야의 입법이 문턱을 넘은 게 거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나라의 위기는 이러한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와 함께 협치와 포용의 정치를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4 01 02 ()

/ 24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새로운 도전의 해 돼야

2024년 새해를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인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강원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일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단합된 저력에 우리 스스로 놀랐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잠재하고 있던 ‘강원도의 힘’이 밑바탕이 되었다. 무슨 일이라고 못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약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언제까지 정치와 행정에서 소외되며 혜택을 기다리는 변방이 될 수는 없다. 다른 지역과 형평은 못 맞추더라도 격차가 더 벌어져서는 곤란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이

구호에만 그치고 ‘살기 좋은 강원도’가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갑진년 새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았던 힘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보자. 그동안 빈약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괄목할 만큼 이뤄졌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영동·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경춘선 복선 전철화, 동서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철도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인 도로망 구축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늦었지만 강원도의 도로망 확충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새해는 지

역의 경제적 성장에 치중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삶의 질 향상 측면까지 확대해 가는 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서민 경제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관광인프라 조성과 마케팅에도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을 배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어촌 대책,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산 가꾸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

복지 정책, 강원특별자치도적인 문화 형성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방분권전략에 가일층 속도를 내면서,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

동계올림픽 유치 저력 다시 살려내야 할 때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수립하고

스스로 경쟁력 갖춰 한국의 중심축 구축을

도권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소에 지혜와 힘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전국화, 세계화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채 마냥 혜택을 기다리는 변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원만 요구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보자.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꿈과 희망이 있기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다. 새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년이 돼야 한다.